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주간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사목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말고 오묘한 그 말씀 / 7월 26일 금요일

7. 예언적인 새 이스라엘과 신약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새 이스라엘, 약속의 완성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완성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이삭은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며 세상의 팔로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나라, 즉 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한다(사 55:1~5). 그 나라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시 5:4).

선지자들이 말한 새 이스라엘은 환상인가 실재인가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그 땅은 실제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 선지자들이 외친 새 이스라엘은 그저 실제적인 일에 대한 은유인가? 아니면 선지자들이 본 그대로 새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것들은 실제로 중요시하며 21세기가 되는 우리에게 깊이 되새겨지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요셉이나 아담은 실제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실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나 유물론적 개념없는 막대한 사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체만 생각하고 그 죽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과 새 이스라엘이 올 것에 대해서는 몸소 느끼지 못한다.

믿음의 기초 / 진실의 이 땅 위에 이루어진 십자가

이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에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믿어 스스로 존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으로,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기초를 두고 발전시킨다. 인간은 실제적인 삶을 완전히 영감하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과학은 인간의 종교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을 발견시키고 애송행위를 하며 철학으로 충족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종교성을 신에게서 찾는데 이 종교성조차도 인간의 의식과 삶에 기초를 둔다. 그래서 그 종교성의 근간이 물질이나 도덕성이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은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기질과 전혀 개념이 다르다.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사고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사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저 장난스런 종교일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십자가의 연결은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전설로 이어져졌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 아무도 실재가 아니지만 믿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일 것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듯이 보

기에 멀어지지 않고 듣고 싶지 않게 된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물질이나 도덕적만이 실제이며 진실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 환상 같은, 실재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있다. 십자가는 새 이스라엘의 정점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 확실하게 믿어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증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마 1:1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으로 이루어졌는가? 최소한 확실한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원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한 22:1~23). 선지자들은 말씀과 정 반대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대 응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들은 말씀과는 정 반대로 갔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했으나 이스라엘은 정 반대의 메시아를 원했다(사 52:13~53:12).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십자가로 가져갈 때에 믿음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세리 마태는 이 말씀을 알고 믿었으므로 놀랄만 하도 바르사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간증했으며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혀 벗어났던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루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셨음을 직접적으로 밝혔다(갈 3:13, 고후: 5:21).

말씀으로 창조되는 새 이스라엘

그렇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다(롬 6:23).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청하지 않겠다'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삼 3:10).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인류가 심판을 당한 것이다. 그 무덤에 장사된 채 인류의 죄가 죽은 것이다(골 2:13~14).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죽였다. 이것은 진정 사실이다. 이것을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세상으로 두고 믿음을 되찾은 것으로 착각한다. 말씀은 똑같이 아니라 뜻하기를 만드는데 것이 창조하는 법이다(고후 5:17).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쉽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창조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그리는 것은 애초에 없다. 요한이 밧모섬에 잡혀있을 때 열두 지파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요한의 환상 속에 이스라엘은 살아있고 영두 지파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새 이스라엘은 끝까지 없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 · 난 · 수 · 요 · 에 · 매 · 매 · 시 · 지

거룩함 (살전 4:3)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살전 4:3).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마 16:17) 날에 이를 다스리라(마 23:8).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길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이지만, 교회가 이 거룩함과 음은 행실들 6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거룩함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최후선이 예수 그리스도야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활 제일 아버지에 대해 있다고 그만 없다고 고백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없으며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재창조. 다시 말해 새 피조물이다. 이것이 진리가 되자마자 일단 우리는 거룩함과 관련 없는 것(마 23:8).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본성이고 하나님에 원하시는 뜻이다. 이 재창조로 인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들에게 거듭나고 있고 재창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의뢰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시 장면을 두려워하는 이는 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두려워 말고(고 3:1) 그분의 의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 있다. One step is enough. 그렇게 할 때로써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로 맡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역시임을 알게 된다.

거룩함의 의미

거룩함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깨끗함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룩함은 지극다. 분리되라는 의의 가지고 있다. 거룩하에 거할만한 자가 예수님 앞에 거했을 때 그는 거룩하게 되었다(눅 23:3). 죄를 질려 세상과 타협 없이 이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대하 29:5, 12, 2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벧전 1:5).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재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와 나의 관계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의식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한계지점을 극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계속적인 자기 부인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만해지게 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해 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7) 날에 이를 다스리라(마 23:8) 고백했지만 곧바로 마귀의 유혹에 아들을 보는 것만 보았을 뿐이다. 또한 봉헌 의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곧바로 물에 빠졌다(마 14:28~31). 이처럼 주님이 칭찬하는 순간 베드로는 넘어졌다. 칭찬을 받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는 매순간 십자가가 없으면 망한다.

거룩함의 시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을 믿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과 내 경멸의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에게 내 삶의 전 영역을 이끄시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이는 자식에서 자라가 영성이 이자와 연합한 날까지 재배에 있을지어다'(벧후 3:18).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재배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거룩함으로 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에 영생하라(골 6:22).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

'사역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 죄를 위하여 화해책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나니(로 4:11) 4:11.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사역이 아들을 통해 나타났으니, 우리의 사역인 거룩함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나의 종으로 되고 하나님께 나의 주의 거룩함이요, 이 거룩함은 이 명령을 따르는 사역을 통해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베풀 때만이 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존엄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필히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적 책임과 의무는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로 17:1). 이 말씀 안에서 돌아올 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적인 나 자신의 부인이 있게 된다.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우리 빛 가운데 있게 하소서(요 1:7).

Repent and Turn Away

(Ezekiel 14:6)

"Therefore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Repent and turn away from your idols and turn your faces away from all your abominations"

This is God's message to His people! He advises them to repent and turn away from their idols and to turn their faces away from all their sins. This counsel is found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en you read the books of Jeremiah, Isaiah, and Ezekiel, you see these prophets crying out to their people to "repent" and to "turn away" from sin. In the New Testament, you hear John the Baptist, who prepared the Messiah's way, cry out,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3:2). You even hear our Lord Jesus preach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4:17). God truly watches our hearts. He wants them to be pure. He gives us advice because He loves us.

Human beings cannot worship two masters (see Mt. 6:24). It's impossible to serve and glorify God if you're serving and glorifying someone or something else. God wants His people to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To relate with God requires repentance. God's people must repent and turn away from sin in order to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As such, it's imperative that we repent. In general usage, repentance is just a feeling of sorrow for what one has done. This is not what God has in mind. The Scriptures testify that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that bears fruit in a changed life. It radically transforms our attitudes and direction. It turns us toward God and His will and away from sin. Let's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t truly means to repent.

The first step of repentance is salvation. Before you turn to God, you have to repent. However, God acts first in this process. It is His kindness that leads you to repentance (see Rom. 2:4). His mercy draws you toward Him and makes you repent. Romans 5:8 clearly say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God first loved you. He proved His love by sacrificing His only Son for your sins. Jesus died for you! If you want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hoever you are, you have to repent.

Repentance is God's authoritative advice. The condition of the human heart cannot communicate with God without repentance. The Pharisees were the most influential of the Jewish people at the time of Christ. Though holding orthodox doctrines, their zeal for the Mosaic Law led them to a degenerate, though strict, outward observance of both the law and their equally authoritative (in their own eyes) interpretations of it. They knew the Scriptures, tithed, and prayed; but they were also hypocritical, self-righteous, and the foremost persecutors of the Lord. No matter how nice your clothes are, or how well conditioned you've made your heart to proclaim, "I will love God", or how much money you give to the church, or even how much you pray; you cannot change the nature of your heart without repentance. Without repentance, you ignore the righteousness of God. You practice idolatry. Past and present men, educated, well meaning, wise, rich, and poor people all have the same condition of heart.

Repentance is needed because it opens the way of salvation to the sinner. The nature of all humans is sinful! Our character is selfish. In order for your nature and character to change, you have to repent. Those who repent are born again. If you just have mere sorrow or regret for your sin, you haven't repented. If your character and emotion control your repentance, you haven't repented. Repentance has a spiritual result. Look at Matthew 3:8, "Therefore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Seriously, if you think reading your Bible, going to church, spending time

in prayer, and working for religious purposes is what everything is about, you've missed it. The common teaching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said that the Jews participated in the merits of Abraham, which made their prayers acceptable, helped in war, expiated sins, appeased the wrath of God, and assured a share in God's eternal kingdom. One can only imagine how surprised they were when John and Jesus preached the necessity of personal repentance! You have to bear fruit. If you repent, it has to show. You have to change spiritually.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ill be evident.

True repentance means that you ha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en you repent, you cry and have real sorrow, but afterwards you have real joy. That'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en you return to the perfect way, you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our spiritual eyes can see Jerusalem. You can see real eternal life and God as your Father. Psalm 33:20&21 says, "Our soul waits for the Lord; He is our help and our shield. For our heart rejoices in Him. Because we trust in His holy name." Amen. If you don't repent, sorrow grieves your soul and all earthly things become your hope. But when you truly repent, there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You see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your heart becomes filled with faith, hope, and love.

When God gives you the warning to repent, that calling is merciful. He doesn't hate you. He wants you to change. He wants to change your acts. His message to you is a sign of His great love. It's why He sent His servant, His only Son. Jesus paid the price for your sins. He sacrificed and gave His mercy. This voice you hear is authoritative. It is the Creator's cry. His calling, before judgment. To all the nations, to every human being, He call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Think about it. Repentance is your choice. Please don't be a hypocrite because God watches your heart. If you don't deny yourself, you cannot change inward or outward. Oh, how many Christians deceive themselves by cleaning up their outside appearances. Woe to you because you don't ha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only the fruits of human attainment. All people, it doesn't make a difference who you are, must repent in order to join with God. You cannot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uman effort. You have to surrender to the Lord. Just return to God. If you return, totally, and give up yourself, the Holy Spirit will touch you and change you. He will change your life, your nature, and your character. You will become a new creatur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Amen! There is judgment for all sinners, but God's calling is not the judgment. His calling is not out of hate. His calling is perfect love.

Who can repent? Who can attain unto heaven? The Pharisees, Scribes, and religious leaders tried, but sin turned them away and against Jesus.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Repent means to turn away from your sins and turn towards God in total submissiveness; not by your power or by your might,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Lord God calls for you to repent and turn away from your idols (money, prestige, power, etc.) and turn your face away from all your sins now. There is urgency in His voice. My dear friends, tomorrow is promised to no one. Heaven and hell are real entities. Two masters lead to hell, and any other master other than Jesus Christ leads to hell. Repent, turn away from sin, and accept Jesus Christ as your Master. 

돌이켜 떠나라 (겔 14:6)



김성광 목사

언제나 똑같은 죄짐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라고 충고하십니다. 이러한 권고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인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의 글을 읽게 되면, 이들이 '회개할 것'과 죄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부르셨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 의해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마 3:2). 또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려면 회개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라는 명령에 따라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그러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회개는 단지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회개란 변화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

회개의 첫 걸음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먼저 이 회개의 과정을 지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2: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분의 자비함은 여러분을 그분께로 이끌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5:8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의 아들들을 희락 제물로 삼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신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권고

회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충고입니다. 인간 마음의 상태는 회개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유대법률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이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교리들을 붙들기는 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그들을 타락과 치탄인 엄격함에 빠져게 했고, 율법과 자신들의 해석에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며 회개적인 준수에 빠져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실질로, 그리고 기도 속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적이고, 자기 의(義)에 사로잡혔으며, 주님을 가장 심각하게 비판하던 박해자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우을 얻었는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라고 선포하려는 마음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에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누릴 것이며, 믿음도 우상숭배나 맹목적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 - 주님을 받았는지, 좋은 취지를 가졌는지, 지혜롭든지, 부유하거나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 모두가 다 동일한 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회개는 회개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성과 성품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거듭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단지 슬퍼하거나 후회했을 한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성품과 감정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제한다면, 그것 역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3:8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신앙적인 목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일련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특별한 것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전쟁에서 주의 도움을 입으며,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히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기쁨으로 확실하게 상속받게 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설했을 때, 듣는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만일 회개한다면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열매가 그 변화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성경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는 탄식과 진한 슬픔이 있지만, 그 후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한 길로 돌아올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상과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20-21을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오니 저는 우리의 도움을 밤새 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함하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극한 슬픔 가운데 빠질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욕망이 되어 영혼 속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에 이룬다면, 그곳에 성경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차 넘쳐흐를 것입니다.

회개는 자비의 음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 부르심은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대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자신의 종과 자신의 동생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제물이 되셨고, 그의 자비를 나 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음성은 위엄으로 가득찬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심판하기 전에 머무는 창조자의 탄식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누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외식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탄약갑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들의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성경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열매만을 맺는다면, 공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름 바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천적으로도 돌아서고, 자기를 부인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무단지라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과 본성, 그리고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어떤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한 주일만을 섬기는 자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들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우상들을, 위선, 권세, 돈을 의면하며, 당당히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음성은 긴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도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 아들이십시오.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체코

 3교구 단기선교단(8월 5일~14일)
프라그 · 오스트로브 · 뉘섹 지역 선교

1.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2. 대원들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복음에 동감한 체코인들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루마니아

 대학부 단기선교단(8월 5일~15일)
플로이예슈티 · 브라소브 · 시비우 지역 선교

1.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어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2. 하나님께서 대원 모두의 여정을 인도하시도록

불가리아

 7교구 단기선교단(8월 5일~16일)
벨리코투르노보 · 아르바나시 · 에투라 지역 선교

1. 아디를 가진지 성부 · 성자 · 성령이 함께 하소서
2. 우리의 자라는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하소서
3. 불가리아의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도미니카 공화국

 유년부 단기선교단(8월 5일~15일)
산도 도밍고 · 라 로마나 · 산 페드로 지역 선교

1. 구원하기로 태생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전하게 하소서
2.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3. 사역기간 동안 대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스리랑카

 영아부 단기선교단(8월 6일~14일)
캔디 · 케피터콜라 · 람보다 · 쿠르네갈라 지역 선교

1. 스리랑카의 어린 영혼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2. 전 대원이 건강하게 주님께 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모든 사역이 예정대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몽골A

 14교구 단기선교단(8월 6일~14일)
유리슘 · 투식슘 · 불강슘 지역 선교

1. 유리슘에 거주하는 몽골족, 카자흐족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2. 투식슘 지역(러시아 국경 인접) 군인과 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3. 불강슘의 농민, 유목민, 특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전하도록

몽골B

 7교구 단기선교단(8월 6일~16일)
사안산드 지역 선교

1. 대원 모두가 성령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2.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도록
3. 사역지 영혼들이 복음에 돌아오도록

카자흐스탄

 15교구 단기선교단(8월 6일~16일)
세메이 · 파브로다 지역 선교

1. 우리의 입술에 전할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소서
2.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3.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엘살바도르

 할랄루아 단기선교단(8월 7일~17일)
빈민촌 · 대학교 지역 선교

1.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선교사역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2. 빈민촌 주민들과 대학생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3.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몽골C

 청년1부 단기선교단(8월 8일~15일)
고비숨베르 · 민드거위 및 주변 4개지역 선교

1. 선교 지역과 주변 지역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게 하소서
2. 모든 대원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몽골D

 1교구 단기선교단(8월 8일~15일)
던거위 · 우문거위 · 만달거위 지역 선교

1. 몽골 사람들이 무신론에서 회개하고 돌아키도록
2.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A

 고등부 단기선교단(8월 8일~17일)
치타공 지역 선교

1. 대원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2. 이번 사역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대원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방글라데시B

 고등부 단기선교단(8월 8일~17일)
보그라 지역 선교

1.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2. 대원들 모두 순간순간 기도와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 보그라와 치타공 지역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즈베키스탄

 청년1부 단기선교단(8월 9일~17일)
타쉬켄트 · 니망간 지역 선교

1. 우즈베키스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2.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3. 모든 대원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타쉬켄트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대학부와 탁아부 선교단과

우크라이나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8교구 선교단,

인도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고등부와 청년1부 선교단, 몽골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5교구 선교단,

체코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대학부 선교단,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학원정도의 선교단,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청년2부 선교단이 지난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 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현제 사역 중인 선교팀

부서	사역지	날짜
1교구	우크라이나	7월 26일(금)-8월 7일(수)
대학부	스리랑카	7월 27일(토)-8월 7일(수)
청년1부	터키A	7월 29일(월)-8월 7일(수)
대학부	루마니아A	7월 29일(월)-8월 9일(금)
청년1부	터키B	7월 29일(월)-8월 9일(금)
대학부	터키C	7월 29일(월)-8월 7일(월)
6교구	불가리아A	7월 29일(월)-8월 7일(수)
6교구	불가리아B	7월 29일(월)-8월 9일(금)
장년3부	불가리아C/D	7월 29일(월)-8월 9일(금)
중등1부	스리랑카A	7월 30일(화)-8월 7일(수)
유치부	체코	7월 30일(화)-8월 9일(금)
경찰전도회	우즈베키스탄	7월 30일(화)-8월 10일(토)
대학부	과테말라	8월 1일(목)-8월 14일(수)
중등2부	스리랑카B	8월 3일(토)-8월 9일(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김 지 희 (유년부 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단원)

CMTC훈련을 한주 한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들에게 참 생명을 줄 일꾼이 이 세상엔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국교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열린 추수지역'입니다. 인구의 90%가 자신의 종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식민지 시대 전파된 이후 계속 토속화되어 온 종교일 뿐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닐까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이지만 주님께서 써 주심에 참 기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몽골을 기대하며

윤 선 미 (청년부, 몽골 단기선교단원)

사실 나는 직장 때문에 이번 선교를 가지 못할 상황이었다. 선교를 떠나는 날짜가 회사에서 준비하는 큰 행사 기간과 겹쳤기에 이미 마음 속으로 단기선교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기선교를 한번도 감당해 보지 못했던 나에게 이번 기회는 내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며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몽골 단기선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심어 주셨고, 나는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며 고민 끝에 직장에 사표를 쓰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몽골 단기 선교단에 합류해 언어훈련 및 팀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늦게 시작한 나의 팀 훈련이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여름 농촌사역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훈련시키셨다. 교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의 참된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 농촌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 속에서 몽골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한다. 몽골에서도 펼쳐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내 맘을 설레게 한다. 난 그곳에서 성령님 그리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예수스드 이트게레” (예수 믿으세요)

고난 중에 의지되신

정 해 실 (고동부)

중국 생활을 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 중국으로 갈 때, 가족·친구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고,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섭고 자신 없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들 통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흔히 사람들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다. 나 역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더 찾았다.

금방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막막함과 답답함 때문에 많이 고생한 기억이 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 많이 위로해 주셨다. 주님의 위로로 밤마다 공부하다 보니, 차차 말문이 트이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련함도 잠시, 또 한번의 어려움이 닥쳤다. 건강이 문제였다. 신장을 위해 써서진 약이 많이 약해져서 병원을 많이 들락날락 거리던 기억도 난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주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든 생각에 감사했다. 사실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중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힘든 상황들을 많이 접하지만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기쁨, 주를 의뢰함

송 영 상 (할렐루야 찬양대, 엘살바도르 단기선교단원)

나는 평소 전도의 열매가 없는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 별난 신앙경험도,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인생의 굴곡도 없이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사심 평생이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을 어리석다 여기고 주위 사람에게도 적극 피할 것을 권고해 왔던 내가 단기선교를 가게 되다니, 이는 도저히 인간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었다. 이번의 단기선교는 개인적 신앙과 사회활동과가 가정생활 모두에 무리를 주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회사에서는, 확실하게 모든 일을 도맡아 하던 핵심 과장이 될 책이나 퇴직하는 바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져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가족들의 인간적인 우려와 애정 섞인 만류는 거의 단기선교를 포기하도록 나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뒤흔들었다.

차라리 교구에서 가는 가까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니, 주위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한다는 등, 별의 별 결정과 세상적 계산들이 나의 몸과 마음을 쏙뚫어 두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대원들은 기도 이외에 다른 길 없음을 깨닫고 매일 새벽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로써 응답받기를 간구하였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조별로 선교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간적인 우려와 염려와 악조건이 해결되어 기쁨 마음으로 선교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이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엘살바도르의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는 출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승리를 내게 주신 것임을 확신한다. 이제 남은 절반의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겹쳐서,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껏 믿음의 본을 세울로 보여주지 못했던 아버로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주는 계기가 되는 단기선교가 되기를 기도한다.

비전

박 철 충 (전도사, 고동부 부지도)

예수의
후손들을
가졌노라

지난 달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동부 학생들에게 비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거나 비전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장래 희망'을 말한다. 주로 '나는 00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00가 되려고 합니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 이 질문이 그러한 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어에 '왜' 그러한 비전을 지녔는가? 라고 질문한다. 정말 궁금한 것은 이에 대한 답이다.

꿈을 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더욱 그 선을 굳게 만들고 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어른들은 '살을 살이봐라, 어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라고 말습신다. 이제 겨우 어른이라는 명칭에 익숙해지고 있는 나는 어른의 어른들께 '살이 어떻게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또 다른 꿈에 관한 문제를 던져보자. 성공신앙을 들고 있는 자서전적인 사적들이 사적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그 줄거리는 어린 시절의 꿈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낸 '성공'의 줄거리를 다루고 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미의 '성공'의 사적에서 그 인물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기록한 것들이기에,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혹은 너무나 평범한 꿈들...

교과에서 '비전(vision)'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전에 이것은 영성 기구나 사색 보조 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였다. 사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비전'이라는 말과 그 의미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비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장래 희망'이나 '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장래 희망'과 '꿈'은 그 자체가 일반적로 '나'가, 내가 꿈꾸는 것이고, 내가 희망하는 것이기에 나는 얼마든지 나의 꿈과 희망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세상이 나의 비전을 이루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꿈과 희망을 이뤘다면,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그 자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과 이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동참시키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며, 그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비전이 아닌 나의 꿈을 품고 사는가? 목회자만이 특별하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역자와 선을 그어 개인과 의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아들 지영이를 선교지에 보내며

금 옥 연 (집사, 7교구)

90년 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했을 때, 시아버님께서 “말머느리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집에 발길을 끊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일이 생각나니, 너무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단호하게 아버님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었다.

“제가 아버님의 머느리로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한 데 영혼은 아버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담 후, 아버님께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며 이해해 주셨다. 남편 역시 일 년 이상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유치원생이었던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영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 타국 우크라이나로 복음을 들고 떠났다. 믿음의 불모지였던 시댁과 친정에서 아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더위에 피부까지 않고 순순히 선교지로 가겠다고 순종한 아들에게도 고맙다. 그곳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좋겠다며 떠나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젊은 날에 경험한 이 귀한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곧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아야 할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지영이가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력의 방해를 넘겨쳐 이기고 돌아오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믿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가정에서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한다.

다움주일 찬송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가는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경으로 원리온 트루 슬리퍼 목사가 1887년에 작사하였다. 인생의 고통과 실망과 낭패와 절망과 죽음의 멍에를,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므로 벗어낼 수 있음을 노래하는 신앙고백적 찬송이다. 무디 선생과 오랫동안 찬송인도자로 전도생활을 하던 스테빈스가 ‘예수님, 제가 옵니다(Jesus, I come)’라는 곡명으로 작곡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1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배부시는 주께로 옵니다. 번들 내 몸이 튼튼하고 반궁한 삶이 부패하여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 2절: 눈피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심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몸과 전진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고요 주께로 옵니다.
- 3절: 고난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심한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버리고요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도구 해버리고 영화의 나라 다리서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유를 조목조목 아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불러야 할 것이라, 결코 슬프지 않게 사탄의 은총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밝고 기쁘게 부르짖는다.

(전영원찬)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나오미



뜻기는 혼란한 사사 시대에 베헤레헨에 살았던 한 경건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야가 가정 시작됩니다. 뜻기 첫머리에는 이 가정의 인적 사항과 환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엘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의 처 나오미와 두 머느리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룻 1:1-5).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절망과 죽음의 어두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이 여인이 이방 땅에서 잊혀지는 미래를 눈 앞에 두고 어떻게 절망을 벗어 나 소망에 거하는 어머니가 되었는가를 뜻기에서 심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 가장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모압 여인인 머느리 룻과 오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켰던 이 가정,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저 비통해 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 한 가닥 실모라기 같은 희망이 있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그 곳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고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녀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룻 1:19-21). 그러고 보니 그녀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뜻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하며 끝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룻 1:16-17). 이 뜻이 후에 보아수를 남편으로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룻 4:13-17).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고통과 기쁨과 축복의 복합적인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29-30 안에서 간증하고 있으며,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길이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약 5:11). 또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아래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당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벧전 4:12-13).

나오미는 참혹한 시련을 당하였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구원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 룻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오미를 들어주시고 무력한 나오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양임♡조경현’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자 전복사고로 뇌를 많이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소망이 없었는데, 외사촌 동생의 전도로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몰라보았던 아들이 지금은 집안에서 자선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흔차 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외우고 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래는 이미 새가족부를 수료했는데, 남편을 위해 아들과 함께 다시 새가족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의 성실한 기도생활을 본받아 남편도 새벽 기도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암 치료 중인 남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옥정 통신원)

양요일

1교구 장상순 권사(여55세) 뇌출혈로 입원 중인데 오른 쪽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이성진(남8세) 근육위축성-신체의 아래부분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부평 소재 사회복지재단인 성동원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하루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지내도록, 또 그 가정에 들는 손길이 더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김선애 성도(여52세) 빈두투종양으로 목 부위의 암을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우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실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Jesus' heart, my heart!"



박 동 민 (중동1부 교사)

이번 중동 1부 수련회 주제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달아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들이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 계획했던 것들의 추진이 쉽지 않았다. 생각보다 방학을 늦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제때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고, 굶은 날씨 때문에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도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기도원은 서울에서 지친 모두의 영혼을 주님께 위로 받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은 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경험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부흥회를 통해 서로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느꼈다. 부흥회에서 목사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 가지 일러주셨는데 그것은 내게에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다.

흔히 수련회를 잠깐 쉬고 오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 역시도 기도원에서 작성했던 것을 집으로 돌아와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동 1부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마음에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새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차로 세상의 모든 일에도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영혼이 되길 바란다.

회개 vs. 죄책감

김성경 (전도사, 중동2부 부지도)

대부분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불안과 수치를 경험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과 관련하여 타인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께 혼이 날까와 두려워하는 아이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죄책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과는 다르다. 죄책의 감정,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안과 수치는 철저히 개인적인 의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죄책감은 나의 행실에 대하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들이 내게 비난을 퍼부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는 인간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들에만 집중한다. 자신의 약해 때문에 타인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염려나 걱정, 미안한 감정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친 아이가 차주 그릇의 행동을 회개할 만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께 혼날까봐' 아버지와 눈도 못 마주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인간의 죄책감이다. 만약 아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 도덕적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신의를 깼다'는 점에 대해 가슴아파했을 것이다.

회개와 죄책감을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성격적 비교 사례는 베드로와 가롯 유다 일 것이다.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께서 가룟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 애도할 것으로 회개했다. 그러나 회개 대신 목숨을 끊을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절타와 거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과 수치, 즉 죄책감만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와 관련하여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부모, 이웃,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뉘우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에 대해 무한한 인간이 진실한 회개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십대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통학선생의 역할을 점차 포기해야 한다. 대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난 우리 아이들은 혼란 일을 걱정하는 불안과 죄책감 대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피해를 입은 이웃을 걱정하며 미안해 하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산법

박경배 (회선부 교사)

성경을 보다보면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일 명의 의인과 수십 만 죄인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십니다. 보잘 것 없는 과부의 두 렵돈을, 연보케의 어느 부자 현금보다 많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아홉아홉 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애타해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이는 하나님의 계산법이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본질적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신앙에 열심이었던 이였습니다(골 3:6). 유대신앙은 그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한 것이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는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이였습니다(행 9:1-2). 그러나 예수님의 임제를 체험한 뒤, 그는 사나나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 진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철쭉 같은 어두운 속에서도 몸부림칩니다(행 9:9). 그런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외치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행 9:22). 이는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해야만 했던(갈 1:9)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여타 인간의 사교로서 얻어진 산물이 아닌, 온몸으로 체험되어 밝혀 보여지는(갈 3:1) 실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중종의 사욕(私慾)을 충족시키는 허망한 이야기에(딤후 4:4-5) 말씀을 적절하고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물질문명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가고 미련하게(고전 1:23)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단과 세창과 타협할 수 없기에 세상에 거리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는 모든 이를 위한 예배는 아닌 듯 합니다. 오로지 영원한 진리에 갈급해 하며, 주님만으로 참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소수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은 오늘의 예배를 마련해 두신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

강민철 (전도사, 중동3부 부지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결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후사, 사무엘, 다윗, 엘리야,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최상의 모범을 보이신 다음바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 오해리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더욱이 밤이 마지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눅 6:12).

이처럼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하러 시간을 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너무도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셋째마네 동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기도도의 올바른 내용과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안락과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십 본만 호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 본만 하지 않는다고 당장 생명이 지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호흡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라 갈 것이며 영적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단기간을 준비하는 등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말씀과 성경공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전도는 생명력이 없음을 느낍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